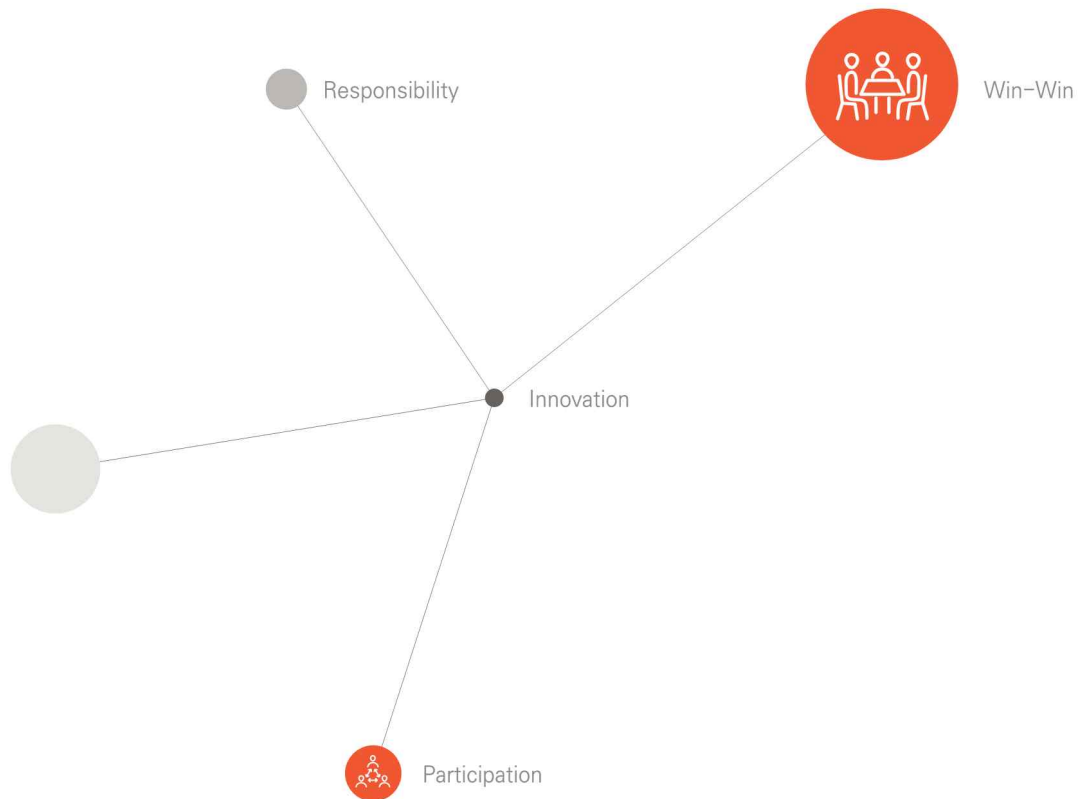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9월



목 차

1. 스페셜 이슈	3
2. 해외시장 동향	12
3. 국내시장 동향	23



1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스페셜 이슈



1. Northstar: Convention Cities Index

가. Northstar Meetings Group

- 노스스타 미팅 그룹(Northstar Meetings Group, 이하 노스스타)은 비즈니스 이벤트 및 스포츠 이벤트 기획자, 기업·협회·제휴기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전문가 등 MICE 산업 전반에 걸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소식과 분석자료, 조사·연구, 전략 및 창의적 해결방안 등을 공유하며, 전 세계 기관들의 업계 기여도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스텔라 어워드(Stella Award)’를 운영하는 대형 B2B 플랫폼임
- 특히 노스스타는 매년 13개국에서 80여 개 이상의 업계 관련 행사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및 컨벤션 관련 ‘Meetings & Conventions’ 및 ‘Successful Meetings’, 인센티브 기획 관련 ‘Incentive’, 그 외 ‘Sports Travel’ 등 MICE 업계 내에서 필독서(must-read)라고 꼽히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개인 맞춤형 콘텐츠 보관함 ‘My Collection’, 전 세계 22만여 호텔의 제안요청서를 단번에 검색해 주는 ‘Event Venue Finder’ 등 업계 내 기획자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 툴을 제공하고 있음

1) CCI(Convention Cities Index) 보고서¹⁾

- 노스스타는 2020년 3월 업계 최초로 6개 지표를 기반으로 전 세계 도시들의 컨벤션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수치화하고 순위를 매기는 CCI(Convention Cities Index)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하였으며, 이후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총 2회씩 보고서와 순위를 발표하며 업계 내·외부의 변화가 컨벤션 도시들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고 시의성 있게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음
- 해당 보고서는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도시별 MICE 인프라 현황과 객관화된 지표를 통해 측정하는 목적지별 경쟁력 수준 및 순위 등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글로벌 MICE 업계, 국제회의 기획자 및 목적지 마케팅 담당자들의 개최지 의사결정,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준다고 평가받고 있음

1) 본 고는 ‘Convention Cities Index’(Northstar Meetings Group, 2022)를 참고 및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2) 주요지표 설명

- 노스스타의 CCI 보고서에서는 도시별 컨벤션 경쟁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총 6가지 지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매기고 가중치를 활용해 환산한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도시별 순위를 부여하는데, 해당하는 평가에 활용되는 평가지표 6가지와 그 특성은 표 1과 같음

<표 1> ‘CCI(Convention Cities Index)’ 주요 지표명 및 세부내용

연번	평가지표명	세부 내용
1	전시면적 (Total Exhibit Space)	CCI 산출 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지표, 해당 도시 내 최소 100만 평방피트(92,093m ²) 이상의 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모든 컨벤션센터의 전시면적 합계
2	호텔 객실 수 (Total Hotel Rooms Nearby)	해당 도시의 컨벤션 센터로부터 도보로 15분 거리 내에 있는 모든 영업 중인 호텔의 객실 수, 구글 맵스(Google Maps) 기준
3	호텔 평균 숙박비 (Average Hotel Cost)	비즈니스 트래블 뉴스(Business Travel News)에서 공표하는 기업여행 지표 기준, 해당 도시 내 호텔에서 하루 숙박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
4	공항까지의 이동시간 (Minutes to Airport)	해당 도시의 컨벤션센터로부터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교통체증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글 맵스(Google Maps) 기준으로 오전 7시에 측정
5	총 항공편수 (Total Flights in a Month)	보고서 발간 전월 한 달간 해당 도시의 주요 공항에 착륙하는 직항편 수, 항공운항정보 전문 플랫폼 시리움(Cirium) 기준
6	안전 점수 (Safety Score)	건강 및 의료 요소, 주간·야간 치안, 성소수자 안전, 여성안전, 절도, 자유로움 등을 수치화하여 1~100점으로 환산한 지표, 위생·안전 관련 데이터플랫폼 지오슈어(GeoSure) 기준

나. 주제별 분석 결과

1) 업계 회복세로 인한 지표 변화(코로나19의 간접적 영향을 받은 지표)

- 노스스타는 2022년 상반기 CCI 리포트에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관광산업으로 인해 점수 및 순위가 크게 변화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컨벤션센터의 전시면적이나 공항으로의 이동시간 등은 관광산업 회복세와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의 점수를 기록해 순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반면 호텔 평균 숙박비, 호텔 객실 수, 총 항공편수 등은 업계 회복세에 따라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순위 변동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하였음

■ 호텔 객실 수 증가

- 우선 호텔 객실 수의 경우 일부 대도시에서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났는데, 이는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었던 2021년 12월에 비해 2022년 5월 당시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약화되었던 것을 근거로 세계 각국이 엔데믹을 바라보며 입국 규제를 철폐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휴업했던 호텔의 영업 재개, 유흥 객실 재활성화 등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됨

- 대표적인 예로 뉴욕의 대표 컨벤션센터인 자비츠 센터 인근의 호텔 객실 수는 2021년 12월 당시 11,490실이었으나, 2022년 5월 기준으로는 13,265실까지 증가해 15.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역시 모스콘 센터 인근의 객실 수가 15,076실에서 17,513실까지 약 16.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호텔 평균 숙박비 상승

- 한편 호텔 객실 수의 급격한 증가가 각국의 수도 등 대도시에서 국한되어 나타난 반면 호텔 평균 숙박비의 상승은 도시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평균 숙박비의 상승 역시 호텔 객실 수 공급 증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엔데믹 시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이 입국규제를 철폐함에 따라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급가격 역시 증가한 것이라는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음
- CCI와 관련하여 세계 각 도시의 분기별 숙박비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비즈니스 트래블 뉴스의 편집국장 베스 웨스트(Beth West)는 이와 같은 숙박비 상승세에 대해 ‘호텔업계 숙박비의 강력한 상승세는 2022년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며, 특히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되던 대형 국제행사 및 회의, 박람회 등이 연말까지 점차 대면 형태로 전환되어 개최될 경우 이러한 상승세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표 2> 세계 주요 도시별 호텔 숙박비 변화 추이(단위: USD, %)

연번	도시명	2021년 12월 숙박비	2022년 5월 숙박비	증감량	증감율
1	뉴욕	224.24	376.14	151.90	67.7%
2	라스베이거스	153.76	218.55	64.79	42.1%
3	샌프란시스코	189.39	246.98	57.59	30.4%
4	로스앤젤레스	187.22	248.83	61.61	32.9%
5	상하이	100.26	114.38	14.12	14.1%
6	선전	106.20	111.28	5.08	4.8%
7	바르셀로나	151.44	173.28	21.84	14.4%
8	마드리드	183.52	209.56	26.04	14.2%
9	파리	228.30	275.88	47.58	20.8%
10	프랑크푸르트	131.63	166.67	35.04	26.6%

※ 2021년 12월과 2022년 5월 모두 CCI 순위권(글로벌 기준/미국 기준)을 기록한 도시 중 선정하였음

■ 항공편수 증가

- 또한 항공편수 역시 호텔 객실 공급량 증가와 비슷한 맥락으로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큰 증가세를 기록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보스턴의 인바운드 항공편 수는 2021년 12월 11,220편에서 2022년 5월 13,651편까지 증가하며 21.7%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샌디에이고는 5,743편에서 7,152편으로 24.5%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독일 뒤셀도르프는 3,877편에서 6,777편까지 74.8% 증가, 바르셀로나는 8,991편에서 12,253편까지 36.3% 증가하였음
-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2년 간의 불황을 거쳐, 이제 항공업계는 강력한 회복의 신호들을 찾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미국 국내 항공운항 시장 현황이나 국제여객 규모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업계 회복이 강력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였으며, ‘다만 (2022년 5월 당시 기준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관광객 입국규제가 폐지되지 않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항공업계 회복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였음
- 실제로 2021년 12월과 2022년 5월 모두 CCI 기준 상위권에 위치한 도시들 중 아시아권에 해당하는 중국의 상하이 및 선전의 경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1% 이하의 증가율을 기록하거나 오히려 항공편수가 감소하기도 하는 등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3> 세계 주요 도시별 운항 항공편수 추이

연번	도시명	2021년 12월 항공편수	2022년 5월 항공편수	증감량	증감율
1	뉴욕	23,273	26,801	3,528	15.2%
2	라스베이거스	13,039	14,702	1,663	12.8%
3	샌프란시스코	10,102	11,154	1,052	10.4%
4	로스앤젤레스	16,429	17,060	631	3.8%
5	상하이	26,152	26,375	223	0.9%
6	선전	14,998	14,847	-151	-1.0%
7	바르셀로나	8,991	12,253	3,262	36.3%
8	마드리드	11,258	13,727	2,469	21.9%
9	파리	21,620	26,258	4,638	21.5%
10	프랑크푸르트	12,672	17,151	4,479	35.3%

※ 2021년 12월과 2022년 5월 모두 CCI 순위권(글로벌 기준/미국 기준)을 기록한 도시 중 선정하였음

2)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지표

■ 안전 점수의 변화

-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MICE 업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면서, 국제회의 기획자 및 참석자들은 모두 ‘행사가 개최되는 도시가 과연 얼마나 안전한가?’를 고려하게 되었으며, 이는 행사 기획 단계에서 행사를 개최할 국가와 도시,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데 대해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음
- CCI의 안전 점수 산출 근거가 되는 지오슈어(GeoSure)가 측정하는 안전 관련 지표는 건강, 의료, 야간 치안, 여성 안전, 성소수자 안전 등 총 7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방역 상황 및 확진자 현황, 의료 수준 등으로 인해 2020년 첫 CCI 집계 이래 안전 점수는 크게 요동쳤으며(미주 지역의 경우 2021년 상반기 부터 안정화), 해당 변화는 그대로 각 도시의 CCI 순위의 등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
- 그러나 2022년 1분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CCI가 공표된 이래 전 분기 대비 도시별 평균 안전 점수 변동 폭이 가장 작은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향후로도 코로나19가 안전 점수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순위가 크게 변화하던 이전과는 달리, 2022년 하반기 이후 부터는 해당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MICE 인프라 수준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CCI의 분석이 지니는 영향력이 점차 강화될 전망

<표 4> 세계 주요 도시별 안전 점수 추이

연번	도시명	2020년 3월	2020년 12월	2021년 6월	2021년 12월	2022년 5월
1	뉴욕	42	미발표	69	68	69
2	라스베이거스	37		65	66	65
3	샌프란시스코	34		65	68	68
4	로스앤젤레스	순위권 외		64	65	65
5	상하이	44		58	56	54
6	선전	50		53	53	52
7	바르셀로나	42		60	78	76
8	마드리드	35		67	77	79
9	파리	31		66	71	72
10	프랑크푸르트	33		68	78	77

※ 2021년 12월과 2022년 5월 모두 CCI 순위권(글로벌 기준/미국 기준)을 기록한 도시 중 선정하였음

3) 2021년 하반기 대비 순위 변동 폭이 가장 큰 도시 및 신규 도시

-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 약화 및 세계 각국 정부의 국경 재개방, 그로 인한 MICE 업계의 재활성화 등은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CCI 순위 및 상위권 도시 구성 등에 큰 변화를 야기하였음
- 노스스타에 따르면 순위가 크게 변화한 도시는 미국 내 기준으로 샌디에이고와 보스턴, 솔트레이크시티 등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스페인의 발렌시아 및 마드리드의 순위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샌디에이고, 보스턴, 마드리드는 순위가 상승하였는데, 샌디에이고와 보스턴은 호텔 객실 수 증가 및 월간 항공기 운항 건수 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마드리드의 경우 월간 항공기 운항 건수 증가 및 안전 점수 지표에서 1위를 기록한 점이 순위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솔트레이크시티와 발렌시아는 순위가 하락하였는데, 솔트레이크시티의 경우 호텔 숙박료가 128.19달러에서 224.01달러까지, 발렌시아는 100.22달러에서 191.42달러까지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 폭을 보여 크게 점수를 잃은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급변하는 순위들 사이에서 상위권인 25위까지의 도시들 중 일부가 교체되었는데, 순위권에 새로 진입한 도시는 각각 싱가포르(22위), 대한민국의 고양시(23위), 이탈리아의 밀라노(25위)이며, 순위권에서 밀려난 도시는 각각 러시아의 모스크바(기존 18위), 영국의 런던(기존 21위), 덴마크의 코펜하겐(기존 24위)임
 - 모스크바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컨벤션센터가 2곳이나 존재하는 등 순위권에 들기에 손색이 없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해 러시아의 국제협화나 베뉴 등과 관계를 모두 중지한 국제회의 업계 및 국제이벤트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순위권에서 제외하였음



GLOBAL DESTINATION	CHANGE	TOTAL EXHIBIT SPACE	TOTAL HOTEL ROOMS NEARBY	AVERAGE HOTEL COST	MINUTES TO AIRPORT	TOTAL FLIGHTS IN MAY 2022 †	SAFETY SCORE	FINAL SCORE
Frankfurt	—	4,305,564	5,384	\$166.67	10	17,151	77	73.28
Las Vegas *	—	4,621,222	42,534	\$218.55	5.67	15,434	65	64.94
Cologne, Germany	+2	3,056,950	1,177	\$128.18	12	3,261	76	57.71
Hanover, Germany	+4	4,224,328	784	\$148.79	24	1,508	77	57.09
Shenzhen, China*	-2	5,435,774	3,839	\$111.28	35	14,847	52	56.99
Shanghai *	—	6,458,346	2,330	\$114.38	19.5	26,375	54	55.63
Orlando	-3	2,053,820	7,083	\$221.74	12	14,966	66	54.12
Birmingham, England	+1	1,959,031	1,819	\$149.06	4	3,290	76	53.73
Guangzhou, China	+1	3,638,201	2,390	\$95.02	40	18,979	57	53.49
Barcelona, Spain	+4	2,583,338	1,851	\$173.28	12	12,253	76	52.85
Dusseldorf, Germany	+4	2,820,144	322	\$143.61	8	6,777	76	52.84
Atlanta	-5	1,500,000	5,739	\$188.38	12	30,465	63	52.53
Paris *	+3	4,976,284	3,432	\$275.88	17.5	26,258	72	51.42
Kunming, China	+3	3,229,173	384	\$102.12	7	13,502	57	50.47
Dallas	-2	1,000,000	6,229	\$190.62	20	32,563	65	50.07
Munich	+4	2,152,782	1,300	\$160.04	22	12,518	77	48.78
Valencia, Spain	-6	2,475,699	226	\$191.42	5	2,848	78	47.33
Madrid	+5	2,583,338	425	\$209.56	4	13,727	79	47.30
Poznań, Poland	+3	1,184,030	715	\$102.09	10	631	68	46.08
Chicago	-1	2,600,000	2,940	\$232.04	12	35,385	67	46.05
New Orleans	-9	1,100,000	7,791	\$240.04	18	4,322	63	44.80
Singapore	New	1,076,391	564	\$157.48	5	7,093	74	43.09
Goyang, South Korea	New	1,162,620	1,248	\$118.70	30	8,243	69	42.57
Chongqing, China	+1	2,152,782	570	\$102.12	24	14,515	57	42.38
Milan, Italy	New	3,713,549	403	\$226.45	24	14,01	69	42.36

* Cities with more than one facility that fit the criteria for indoor exhibit space
† Number of direct flights to the destination in May 2022, U.S. and international

5 Northstar Meetings Group • northstarmeetingsgroup.com June 2022

[그림 1] 2022년 상반기 글로벌 CCI 순위



U.S. ONLY DESTINATION	CHANGE	TOTAL EXHIBIT SPACE	TOTAL HOTEL ROOMS NEARBY	AVERAGE HOTEL COST	MINUTES TO AIRPORT	TOTAL FLIGHTS IN MAY 2022 †	SAFETY SCORE	FINAL SCORE
Atlanta*	—	2,002,000	11,713	\$188.38	15	27,945	63	85.84
Houston*	—	1,951,943	8,676	\$167.44	24	17,366	64	80.32
Las Vegas*	—	4,621,222	42,534	\$218.55	5.67	14,702	65	78.34
Dallas	+1	1,000,000	6,229	\$190.62	20	29,522	65	76.69
Chicago	+1	2,600,000	2,940	\$232.04	12	31,691	67	76.31
Rosemont, Ill.	+2	840,000	4,145	\$182.15	3	25,574	70	75.50
Orlando	-3	2,053,820	7,083	\$221.74	12	13,446	66	74.87
Denver	+1	584,000	9,961	\$189.46	26	23,495	68	73.77
Anaheim, Calif.	-2	1,013,607	8,654	\$202.72	40	18,380	69	73.65
San Diego	+7	615,701	8,946	\$204.19	8	7,152	68	65.56
New York	+5	850,140	13,265	\$376.14	22	26,801	69	64.91
Philadelphia	-1	679,000	11,381	\$210.58	14	9,359	66	64.22
San Francisco	+5	599,100	17,513	\$246.98	12	11,154	68	63.49
San Antonio	+1	514,000	10,797	\$157.48	9	2,939	66	63.39
Indianapolis	-3	749,000	7,889	\$174.65	12	3,727	64	62.74
Washington	+3	703,000	9,575	\$226.88	30	12,659	65	61.47
New Orleans	-7	1,100,000	7,791	\$240.04	18	4,270	63	59.80
Miami Beach	+2	500,000	7,697	\$242.90	12	9,898	65	57.96
Boston	+6	516,000	4,551	\$262.40	5	13,651	70	57.23
Phoenix	-6	584,500	4,304	\$240.81	5	14,167	67	56.74
Los Angeles	+2	720,000	4,185	\$248.83	18	17,060	65	55.15
Salt Lake City	-9	515,000	5,665	\$224.01	8	9,320	65	55.05
Detroit	-1	723,000	3,521	\$167.67	20	11,250	61	52.52
Louisville, Ky.	—	674,478	1,608	\$165.82	4	2,042	68	51.12
St. Louis	-4	502,000	5,827	\$193.79	14	5,854	61	50.64

* Cities with more than one facility that fit the criteria for indoor exhibit space
† Number of direct flights to the destination in May 2022, U.S. only

[그림 2] 2022년 상반기 미국 내 CCI 순위



2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해외시장 동향

2. 해외시장 동향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 일본: 도쿄게임쇼, 3년 만에 온·오프라인 통합 형태로 9월 15일~18일 진행

- 일본 컴퓨터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협회(CESA)가 주최하는 도쿄게임쇼, 20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개최되었으나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 약화 및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로 인하여 3년 만에 온·오프라인 통합 형태로 개최
- 행사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600여 개의 게임사 및 관련업체가 참여하여 총 339개사가 참여했던 2021년의 2배 가량의 수치를 기록, 침체를 딛고 다시 전성기 시절의 규모로 진행되었음
- 도쿄게임쇼는 일본 최고·최대의 게임쇼 중 하나로, 이번 전시에도 세가, 반다이 남코, 스퀘어에닉스, 코나미, 캡콤 등 일본을 대표하는 게임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발매할 콘솔 게임들을 공개하였으며, 특히 ‘소녀’, ‘몬스터 헌터’, ‘스트리트 파이터’ 등 글로벌 인기 IP를 활용한 게임 다수가 출품되어 관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음
- 한편 한국 게임사 다수 역시 도쿄게임쇼 2022에 참여하였는데, 국내 최대의 게임사 중 하나인 넥슨은 자회사 넥슨게임즈가 개발 중인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및 3인칭 슈팅게임을 온라인으로 출품했으며, 씨씨알컨텐츠트리는 닌텐도 스위치 버전으로 출시 예정인 ‘포트리스 S’를 소개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중소기업 15곳과 공동관으로 부스를 꾸려 중소 게임 홍보를 진행하였음



[그림 3] 도쿄게임쇼(TGS) 2022 행사 전경(사진출처: 게임동아)

■ 싱가포르: 주얼리&젬 월드(Jewellery & Gem World) 9월 27일~30일 개최

- 싱가포르, 본래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2022 주얼리&젬 월드’의 대체 개최지로 낙점을 받으면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음
 - ‘주얼리&젬 월드’는 매년 9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세계 3대 보석 전문 전시회 중 하나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파인 주얼리 전시회로, 업계 내에서 관련기업들의 지명도 및 선호도가 매우 높고 전 세계 주얼리 산업 바이어 대다수가 방문하는 명성 있는 행사임
 - 행사 주최사인 인포르마 마켓(Informa Market)은 현재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다수의 관객이 홍콩을 용이하게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상대적으로 더 나은 방역 현황을 보이는 싱가포르가 대면 행사 진행, 접근성 및 치안 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개최지를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하였음
- 싱가포르로 이전한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 최고의 보석 및 귀금속 관련 기업들이 다이아몬드, 다양한 품질 및 색상의 보석, 각종 세공품 등을 출품하였으며, 30여개국에서 참가사 1,000여 곳이 참여하였고, 97개국에서 온 바이어 11,125명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해당 개최실적에 대하여 인포르마 마켓의 디렉터 쉐린 라우는 ‘평균 3만여 명이 방문하던 주얼리&젬 홍콩에 비해 이번 싱가포르에서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맞지만, 개최지가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급작스럽게 변경된 점, 코로나19 상황이 아태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성적’이라고 평가하며 ‘2023년 코로나19 종식 및 여행(입국)규제 철폐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예년의 방문자 수 및 판매 실적 등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음



[그림 4] 2022 주얼리&젬 월드 싱가포르 개최 포스터(사진출처: Jewellery&Gem World)

■ 태국: 코로나19 이후 MICE 산업 본격 회복세

- 태국 MICE업계, 2022년 한 해 동안 10만 명 이상의 MICE 방문객이 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며 엔데믹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태국 전시·컨벤션 뷰로(The Thailand Convention and Exhibition Bureau, TCEB)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6만 9천 명의 외국인 MICE 단체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으며, 9월 4,000명,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3만 1천 명 이상의 MICE 방문객이 태국을 방문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MICE 산업으로 인해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적어도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음
- 태국은 지난 8월 여행·MICE 산업 전문 B2B 플랫폼인 Northstar가 주최한 M&C Asia Stella Awards에서 2년 연속 MICE 행사 개최를 위한 최고의 관광 목적지로 지명됨
 - 태국 방콕, 푸켓, 파타야가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최고의 관광지 탑 3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도 태국의 후힌, 크라비 등이 선호 관광지 순위 상위권을 기록함
- 태국 전시·컨벤션 뷰로(TCEB)의 대표 나 아유타야(Na Ayuthaya)는 인터뷰에서 '엔데믹 이후 MICE 기획자 및 방문객들로부터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전략 개발을 통해 2023년 태국을 최고의 MICE 목적지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그림 5] 9월 APEC 서밋이 개최된 퀸 시리킷 국립컨벤션센터 전경(사진출처: 방콕포스트)

■ 마카오: 전자비자와 단체관광 재개로 MICE 산업 회복세 기대

- 마카오 MICE 업계, 중앙정부의 전자비자 및 단체관광 재개, 입국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약 20~30%의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 마카오 전시컨벤션관광협회(Macao Association of Convention, Exhibition, and Tourism)의 대표 호이 멩(Hoi Meng)은 기자회견에서 ‘11월 중 중국 본토에서 마카오를 방문하는 단체관광 패키지 운영이 재개될 것이며, 10월 말에서 11월 초 개별 관광객 대상 전자비자 발급이 재개됨에 따라 관광·MICE 산업 및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특히 단체관광의 재개는 중국의 광둥, 푸젠, 상하이 등 구매력이 높은 지역에서 출발하는 상품을 포함할 전망이며, 이를 계기로 마카오의 일일 방문자 수가 현재 2만 명 수준에서 4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2022년 약 400여 건의 전시·컨벤션이 개최될 전망이다 마카오의 MICE 업계에서는 ‘Convention plus Tourism’ 모델을 도입, MICE 행사 참여를 목적으로 마카오를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관광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MICE 산업과 관광산업, 지역 내 경제의 조기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500건 이상의 전시 및 컨벤션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제시
- 다만 업계에서는 전자비자 재개와 단체관광 재개에도 불구하고 1인당 마카오 방문 횟수 제한 정책이 폐지된 것이 아닌 만큼 마카오 MICE 산업의 본격 회복을 위해서는 마카오 정부의 규제 철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그림 6] 9월 마카오에서 개최된 제13회 국제인프라투자개발포럼 개최식(사진출처: 마카오뉴스)

■ 스리랑카: MICE 산업 회복 및 발전을 위한 업계 관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스리랑카 컨벤션뷰로(SLCB, Sri Lanka Convention Bureau), MICE 산업의 트렌드 공유 및 신규 MICE 수요·기회의 창출을 위해 9월 15일 행정수도인 콜롬보에 위치한 반다라 나이케 기념 국제 회의장(BMICH, Bandaranaike Memorial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에서 MICE 업계 대상 교육을 진행함
 - 이번 교육엔 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전문 컨퍼런스 주최사 및 전시 주최사, 이벤트 관리업체, 호텔 대표 등 다양한 MICE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함
- 이번 교육프로그램에서는 MICE 산업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지속 가능한 고유 판매 시스템 구축(USPs, Unique Selling Propositions), 호텔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수익 관리 방안에 대하여 강연을 진행하였음
 - 스리랑카 항공은 ‘Oneworld Airline Alliance’에 속해있는 61개국 126개 목적지와 항공사 연결이 MICE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스리랑카가 지니는 아웃바운드 럭셔리 MICE 시장에서의 이점과 웨딩 관광 시장에서의 강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음
 - 또한 스리랑카 항공은 MICE 산업 강화 및 MICE 행사 연계 관광상품 확대 등을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내 서비스, 공항 수송, 특별 항공요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 싱가포르항공 외에도 전직 외교관, 전 GM그룹 관계자, 기업가, 컨설턴트 비즈니스 심리학자, MICE 기업 고문, 여행사 세일즈 매니저 등 다양한 업종 및 분야의 연사들이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산업분야에서 MICE 산업이 배가해 줄 수 있는 이점과 정보를 공유하고 MICE 이벤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유하였음



[그림 7] 스리랑카 MICE 트레이닝 프로그램 현장(사진출처: 아다데라나뉴스)

나. 미주 지역

■ 캐나다: 제9회 글로벌 비즈니스경영·경제 컨퍼런스(GCBME) 밴쿠버에서 개최

- 글로벌컨퍼런스얼라이언스(GCA), 제9회 글로벌 비즈니스경영·경제 컨퍼런스(GCBME, Global Conference on Business Management and Economics)를 9월 24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하였음
 - 글로벌 비즈니스경영·경제 컨퍼런스는 2018년 6월 GCA에 의해 처음 개최된 행사로, 국제 비즈니스, 마케팅, 인재경영, 회계, 경제 등 비즈니스 운영 및 경제를 다루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총 4회씩 개최되는 형태의 행사이나 2020년 5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중단되었으며, 지난 2022년 1월 다시 개최를 재개하였음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약 250여 명의 저널리스트, 50여 명의 CEO, 37명의 발표자 및 강연자들을 포함해 약 1,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조강연으로는 캐나다중앙은행의 사이버보안솔루션 설계자이자 밴쿠버 기술비즈니스대학의 교수인 아시프 아메드(Ashief Ahmed)가 비즈니스 경영 시 고려해야 할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안 요소, 그리고 해당 요소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조치와 원칙 등에 대하여 강연을 진행하였음
- 한편 기조강연 진행 후에는 회계 관련 사기를 검토하기 위한 AI(머신러닝)의 활용방안, 의류산업 내 다양성 존중을 위한 흑인 여성(African Women) 체형 분석 방안, 기업윤리 리더십, 성별 간 임금격차, 소셜미디어 마케팅 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발표가 진행되었음
- 한편 GCA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강조된 바 있는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기술, 머신러닝 기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2022년 12월 '제1회 글로벌 사이버보안&클라우드 컴퓨팅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임



[그림 8] 제9회 글로벌 비즈니스경영·경제 컨퍼런스 홍보자료(사진출처: GCA)

■ 미국: 제34회 중부지역 LDC 가스포럼 시카고에서 개최

- 미국 지역가스배분회사(LDC, Local Distribution Company)가 연례행사로 개최하는 지역별 LDC 가스포럼 중 제34회 중부지역(Mid-Continent) LDC 가스포럼이 웨스틴 시카고 노스 리버 호텔에서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음
 - LDC 가스포럼은 미국 대륙 4개 지역(남동부, 북동부, 서부, 중부) 및 미국-멕시코 천연가스포럼, 걸프만 에너지포럼 등 총 6개 포럼으로 이루어지며, 북미 지역 천연가스 유통 및 거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업계 내 기업들이 참가하고, 다수의 바이어 및 셀러들이 참여하여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천연가스 가격 등 중요 이슈에 대하여 논하는 행사임
- 이번 중부지역 LDC 가스포럼에는 업계 내 350여 기업이 참석하였으며, ‘네트워킹 활동 예약(Scheduled Networking Activities)’을 활용, 짧은 기간 동안 업계 내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업 및 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네트워킹 및 시카고 시내 팸투어를 진행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교류 활성화 및 관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음
- 또한 ‘천연가스와 탄소배출량 제로: 앞으로의 방향성은?’라는 화두를 기반으로 기초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천연가스의 쓰임새, 2022-2023년 천연가스 및 에너지 시장 분석, 가스 공급망 개편 및 전기발전과 천연가스의 관계 등 업계 내에서 이슈로 떠오른 지속가능성 문제 및 업계 운영에 필수적인 인사이트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진행하였음
- LDC 가스포럼은 현재 2022년에 진행하기로 계획한 6개의 지역별 포럼 중 4개의 포럼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10월 중순에 진행될 걸프만 에너지포럼, 11월에 진행될 미국-멕시코 천연가스포럼 등 2개의 포럼을 추가 진행한 뒤 포럼별 의견 및 강연 내용, 인사이트를 취합하여 업계에 공유할 예정



[그림 9] 제34회 중부지역 LDC 가스포럼 현장 사진(사진출처: LDC 가스포럼)

다. 구주 지역

■ 독일: 독일 국제유리산업전시회 'Glasstec 2022', 4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

- 세계 유리산업 최신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유리산업전시회(Glasstec 2022),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독일 메세 뒤셀도르프(Messe Dusseldorf) 전시장에서 개최
 - 국제유리산업전시회(Glasstec)는 B2B 산업 전문 전시회로 유리 생산, 제조 과정에 해당하는 기기부터 완제품까지 유리산업의 모든 공정별 제품을 전시하며, 분야는 크게 유리 프로덕션/기술, 유리 프로세싱 및 파니싱, 유리 완제품 및 응용제품, 관련 부품, 측정, 테스트, 컨트롤, 소프트웨어, 컨설팅, 엔지니어링 서비스, 연구, 유통 등으로 분류됨
 - 특히 해당 전시회는 82%의 높은 외국인 참관객 비율 및 22%의 비유럽권 국가 방문객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 비즈니스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문가 그룹에 초점을 맞춘 글라스텍 컨퍼런스를 비롯해 국제건축협회 회의, 유리기술 특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해 업계 최고·최대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행사임
- 이번 독일 국제유리산업전시회는 탈탄소 산업전시회인 데카벡스포(DecarbXpo, Expo for Decarbonized Industry)를 동시에 개최하여 상공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탈탄소 관련 컨설팅과 제품도 함께 선보였으며, 데카벡스포와 병행하는 만큼 컨퍼런스에서도 기후 보호·자원 효율성·도시화·지속가능한 가치창출·웰빙 등 전체적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테마를 주제로 선정하고 강연을 진행하였음
- 한편 전시회 주최측은 업체별 네트워킹 및 바이어-셀러 매칭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비즈니스 미팅 준비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였으며,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품목, 국가, 부스 위치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하였음



[그림 10] 독일 2022 국제유리산업전시회 컨퍼런스 현장(사진출처: 메세 뒤셀도르프)

■ **독일: 세계최대 자동차 박람회 '2022 IAA 수송 박람회 (IAA Transportation)',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

- 세계 최대 규모의 상용차 행사인 'IAA 상용차 박람회', 독일 하노버에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개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박람회가 취소됨에 따라 4년 만의 재개
 - IAA 박람회는 1897년 처음 개최되어 120여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박람회로, 홀수년에는 승용차 박람회(프랑크푸르트-뮌헨), 짝수년에는 상용차 박람회(하노버)를 번갈아 가며 행사를 개최
- 특히 2022년 개최된 IAA 박람회는 본래 '상용차 박람회'로 진행되어야 했으나, 다루는 주제와 기술의 범주를 더욱 확대하여 '수송 박람회'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으며, 주제 역시 마지막으로 진행하였던 2018년 '아이디어로 움직이다'와 대조되는 뉘앙스의 '사람과 재화가 움직인다'로 선정, 기존에 진행되어오던 박람회와 차이를 두었음
- 실제로 이번 IAA 수송 박람회에는 볼보트럭, 스카니아, 다임러트럭 등 유명 상용차 업체들이 참가하여 행사 및 사업에 관한 전략을 순차적으로 발표했을 뿐 아니라, 독일 전기상용차 업체 칸트론, 캐나다 수소연료전지 전문업체 루프에너지 등 신규 영역별 사업자들이 참가하고, 이전 행사보다 수송을 위한 버스, 전동화, 커넥티드카 등 상용차의 첨단화를 위한 기술을 다수 소개하였음
- 또한 이번 전시회를 주관하는 독일자동차연합에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기후중립이 수송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첨단분야의 사업자들과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IAA를 통해 새로 공개된 개념들을 토대로 기후중립 물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전달
- 한편 이번 행사에는 총 34국에서 1,343곳에 달하는 글로벌 상용차 업체, 특장 및 부품 업체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참가하여 차세대 상용차 전용 배터리를 공개하였음



[그림 11] 2022 IAA 수송 박람회 개최식 현장(사진출처: IAA)

■ 스위스: 세계무역기구(WTO) 공개포럼, 대면 형태로 9월 27~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 세계무역기구(WTO)-국제수출입무역기구(IOE&IT),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형태로 세계무역기구 공개포럼을 개최
- 이번 세계무역기구 공개포럼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은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중심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글로벌 경제 포용성 강화에 있어서 여성참여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성평등 촉진 행사를 진행하였음
- 국제수출입무역기구(IOE&IT, The Institute of Export and International Trade) 역시 세계무역기구의 의견에 동의하며 전 세계적으로 여성 기업가를 위한 역량 구축 및 네트워킹, 정책 의제 형성 등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언급하였음
- 이에 따라 해당 행사는 ‘국제무역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주제로 기조강연 및 패널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에 더해 방글라데시, 르완다, 멕시코, 우루과이 등 여성인권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4인의 여성을 초청, 자신들의 제품을 선보이며 국제적으로 자사의 제품을 시연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여성 창업자로서 직면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는지 논의하는 세션을 진행하였음
- 세계수출입무역기구, 여성 기업가들이 지난 수 년 동안 국제무역 시장에서 기술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무역과 젠더에 대한 인식 제고, 국가 및 국제적인 수준의 정책 논의 등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그림 12] 2022 WTO 공개포럼 현장(사진출처: WTO)



3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국내시장 동향

3. 국내시장 동향

■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개정안, 9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9월 7일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사단법인 한국MICE협회는 변화된 MICE 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MICE 산업의 외연 확장 및 지속적 발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6월 한국MICE협회장 직속 ‘법률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음
 - 현행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제회의를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국제회의의 범주를 과도하게 좁게 해석하도록 하며, 국제회의산업을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여 단순히 국제회의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수준의 기능만을 지니고 있는 업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등 업계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MICE협회는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NTO 및 PCO, MICE 업계 및 학계, 베뉴 담당자 및 CVB 담당자 등 국내 MICE 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여러 번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국회를 방문하여 문체 부와의 조율을 통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기반 강화, MICE 산업 성장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였음
 -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기존 국제회의의 정의에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이외에 ‘기업 회의’를 새로이 추가하는 한편, 국제회의산업의 정의는 단순히 국제회의 대행의 기능을 넘어서 국제회의를 직접 유치하고 기획하는 ‘주최’의 개념을 추가하여 현행 국제회의업의 범위를 확장하였음
 - 또한 ‘국제회의시설’의 정의에는 ‘지원시설’을 추가하고,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국제회의의 기업 육성 및 서비스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국제회의산업 통계를 위한 정보를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국제회의산업의 지역불균형 및 기업육성 부진, 통계체계 개선 요구 등에 대해 대응함

■ 서울: 해양수산부, '제6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컨퍼런스' 9월 15일 개최

- 해양수산부, 9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6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 '제6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컨퍼런스'는 2017년 대한민국이 아태 컨퍼런스를 창설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바다 내비게이션(e-Nav)과 관련된 기술 구축 및 운영사례 공유를 통한 협력부터 나아가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협력을 도모하는 국제적 협의의 장임
- 이번 제6회 아·태 컨퍼런스에는 국제해사기수(IM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국제수로기구(IHO) 등 관련업계의 국제기구와 영국, 덴마크, 호주 등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개국의 정부기관, 학계 등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였음
-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해양디지털 국제표준화를 위한 조화로운 협력(Harmonious cooperation for global maritime digitalization)'로, 탄소저감과 해양디지털 기술의 역할, 해양디지털 기술 및 공유플랫폼의 국제표준화 방안, 해양디지털 전환 협력 방안, 해사분야 사이버 보안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아·태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제수로기구(IHO), 그리고 호주 해사청(AMSA)과 국제 해양디지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제수로기구(IHO) 및 호주는 국제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국제 표준 해양디지털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증에 나서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힘



[그림 13] 제6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컨퍼런스 기념촬영(사진출처: 부산일보)

■ 서울: 9월 20일 '제20회 아세아오세아니아 영상의학회 & 제78회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개최

- 대한영상의학회,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코엑스에서 '제 20회 아세아오세아니아 영상의학회 & 제78회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The 20th Asian Oceanian Congress of Radiology in conjunction with the 78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AOCR & KCR 2022)'를 개최하였음
-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영상의학 학회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국가 60여개국이 참가, 약 5,000명에 이르는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천 명의 영상의학계 전문가들이 수년 만에 모이는 행사인 만큼 고객들에게 오프라인으로 자사의 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을 홍보하려는 기업들이 다수 몰려 기업 전시부스 배정 시에도 매우 열띤 경쟁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 영상의학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공고한 입지를 지니고 있는 GE헬스케어, 조영제 1위 기업인 게르베, 중국 최대 의료기기 기업인 유나이티드이미징, 동국생명과학, 바이엘 등이 플래티넘 스폰서로 등록하였으며, 필립스와 캐논메디칼, 삼성 및 인피니트 등 국내외 기업들도 골드 스폰서로 등록하는 등 높은 스폰서십 수입을 기록하였음
- 또한 내과 분과 중 AI 적용 적합도가 가장 높은 영상의학과 학회라는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의료기기 기업 뿐 아니라 휴론, 클라리파이, 뷰노 등 의료 인공지능 개발사들도 대거 참가하였으며, 그로 인해 학회 주최측에서도 별도로 AI관을 신설,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문을 유도하고 AI와 관련한 별도 세션에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였음



[그림 14] 제20회 아세아오세아니아 영상의학회 & 제78회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포스터(사진출처: 대한영상의학회)

■ 부산: 2022 부산비엔날레. 부산현대미술관 등지에서 9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65일간 개최

- 부산광역시-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하 조직위)가 공동 주최하는 ‘2022부산비엔날레’가 9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65일간 개최됨
- 부산비엔날레는 부산현대미술관, 부산항 제1부두, 영도 폐공장, 초량 산복도로 주택 등에서 동시 진행되는 행사로, ‘부산’이라는 도시를 시공간적인 공감의 매개장소로 활용하여 ‘물결 위 우리’라는 주제를 놓고 25개국 64개팀, 총 80명의 작가가 239점의 작품을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전시
-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부산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당면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이주’, ‘여성 그리고 여성 노동자’, ‘도시생태계’, ‘기술의 변화와 모빌리티’라는 4개의 ‘항로’를 설정하여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작품 전시 이외에도 아티스트와 나누는 간담회 및 강연, 참여작가들이 진행하는 워크숍, 야외극장에서의 공연 등 다양한 범주를 망라하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
- 또한 부산비엔날레에 맞춰 ‘부산학생비엔날레’ 역시 9월 20일 부산시민공원 미로 전시실에서 막을 올렸으며, ‘꿈을 그리는 예술여행’을 주제로 미술수업전·학생작가전 등 다채로운 전시 및 행사를 진행하고 53개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평면 및 입체 작품 1,800점을 부산시민공원 미로전시실과 서면놀이마루에서 감상할 수 있음



[그림 15] 2022 부산비엔날레가 진행 중인 부산현대미술관(사진출처: 뉴시스)

■ 강릉: '2026년 ITS(지능형교통체계) 세계총회' 유치 성공에 따라 인프라 확충 추진

- 강릉시, '2026년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세계총회'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최첨단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광 연계 융복합발전 추진할 계획
 -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는 교통 올림픽으로 불리는 대형 행사로, 90개국 전문가와 기업인 2만 명, 일반인 관람객 2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강릉시는 ITS 세계총회 개최지 인프라를 다지기 위해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 및 미래교통 시스템의 실제 구현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체험의 장을 제공할 계획
 - 10월부터 강릉시 내 110km 구간에서 스마트 신호와 교통정보에 기반을 둔 지능형 교통 체계(ITS)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며 지능형교통체계 운영을 통해 신호대기 시간 감소, 사고율·안전도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강릉역, 강문 해변 오죽헌 등 15.8km를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하여 강릉역·터미널 등 도심에서 관광 해변 간 자율주행차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또한 강릉시는 해당 행사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MICE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컨벤션 센터 등 시설 확충 사업에 착수하고 관광 연계 융복합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 2024년까지 민간자본 560억 원을 들여 포남동 올림픽파크 일원에 연 면적 2만 1,000m² 규모의 대회의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스마트 도시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미래교통을 체험하고 전학할 수 있는 미래교통통합센터를 설치할 예정
 - 또한 컨벤션센터 건립과 함께 국제 수준의 숙박시설 3만 실을 확충하여 MICE 산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해당 인프라를 활용하여 세계총회 후에도 스포츠, 국제 규모 학술대회, 전시회, 기업연수 등을 연중 개최해 글로벌 수준의 MICE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임



[그림 16] 2026 ITS(지능형교통체계) 세계총회 유치 환영식 사진(사진출처: 강릉시청)

■ 광주: 광주관광재단, '2022 광주 유니크메뉴 발굴 공모' 접수 개시

- 광주관광재단, 광주광역시 내 유니크메뉴를 신규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광주지역의 MICE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2022 광주 유니크메뉴 발굴 공모'를 개시
- 이번 유니크메뉴 공모의 경우 광주광역시에 위치하고 2022년 현재 영업 중인 시설 중 30인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회의 및 연회를 개최할 수 있는 상설 대관시설로, 해당 시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중 현장 답사 및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접수 가능
- 유니크메뉴 공모에 대한 평가는 10월 중 참가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전문 심사위원과 함께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총 2회에 나누어 진행한 뒤 최종 평가점수를 기반으로 10개소를 광주 유니크메뉴로 선정할 계획
- 이렇게 선정된 광주 유니크메뉴에 대해 광주관광재단은 유니크메뉴 인증패를 수여하는 한편 MICE 행사 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책자 지원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이 MICE 산업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예정
- 그에 더해 최종 선정된 광주 유니크메뉴는 지난 7월 48개 회원사와 함께 창설한 광주 MICE 얼라이언스(GMA)의 유니크메뉴 분과 회원사로도 등록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GMA 회원사에게 제공되는 홍보영상 제작, 관광·MICE 소식지 홍보,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전망
- 광주관광재단, '광주시와 원팀(One Team) 체계를 구축하고 대형 국제행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유니크메뉴 10개소 추가는 광주 MICE 산업에 있어 새로운 강점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



[그림 17] 광주의 주요 유니크메뉴 중 하나인 광주 전통문화관(사진출처: 광주관광재단)